

해외출장복명서

기 간: 2014. 11. 16~2014. 11. 22
출장지: 일본(도쿄, 기타큐슈, 교탕고,
요코하마)
출장자: 이왕건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일본 도쿄, 기타큐슈, 교토고, 요코하마

2. 출장기간: 2014. 11. 16(일)~ 11. 22(토)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왕건	

4. 출장목적

□ 선진기술, 관리시스템, 이해관계자들과의 다양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룬 일본형 “미래도시”의 우수사례 견학 및 토론

II. 출장일정

일정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1.16 (일)	인천	동경	(10:00 ~ 12:10) 인천 출발 동경 도착	항공편: AIRBUS A321
11.17 (월)	동경	-	(08:00 ~ 14:05) - APO 회의 개최식 및 세미나 참석	Shuzo Murakami (건설환경에너지보전연구원장)
	동경	기타큐슈	(14:05 ~ 17:30) 이동	항공편
11.18 (화)	기타큐슈	-	(08:20 ~ 15:00) - 에코타운센터, 자원재생공장, 클러스터 에너지관리시스템 방문	아시아생산성본부 관계자
	기타큐슈	교토	(15:00 ~ 20:00) 이동	기차
11.19 (수)	교토	교탕고	(07:30 ~ 10:30) 이동	버스
	교탕고		(10:30 ~ 15:00) - 자원재생공장 및 시청방문	교탕고시 공무원
	교탕고	교토	(15:00 ~ 18:00) 이동	버스
11.20 (목)	교토	-	(08:30 ~ 13:30) - Fu-Den-Kan 방문 - 미래도시에 대한 토론	버스
	교토	요코하마	(13:30 ~ 18:00) 이동	기차
11.21 (금)	요코하마	-	(08:30 ~ 15:30) - 퓨처센터 방문 - Zonohana 테라스 방문 - BankART 스튜디오 방문 - Hidecho 지역 방문 (15:30 ~ 18:00) - 평가, 폐회식	Kozue (요코하마시 Director general) Naoki Ogiwara (APO 국장)
	요코하마	동경	(18:00 ~ 20:00) 이동	기차
11.22 (토)	동경	인천	(13:30 ~ 16:10) 동경 출발 인천도착	항공편: Airbus A321

III. 수행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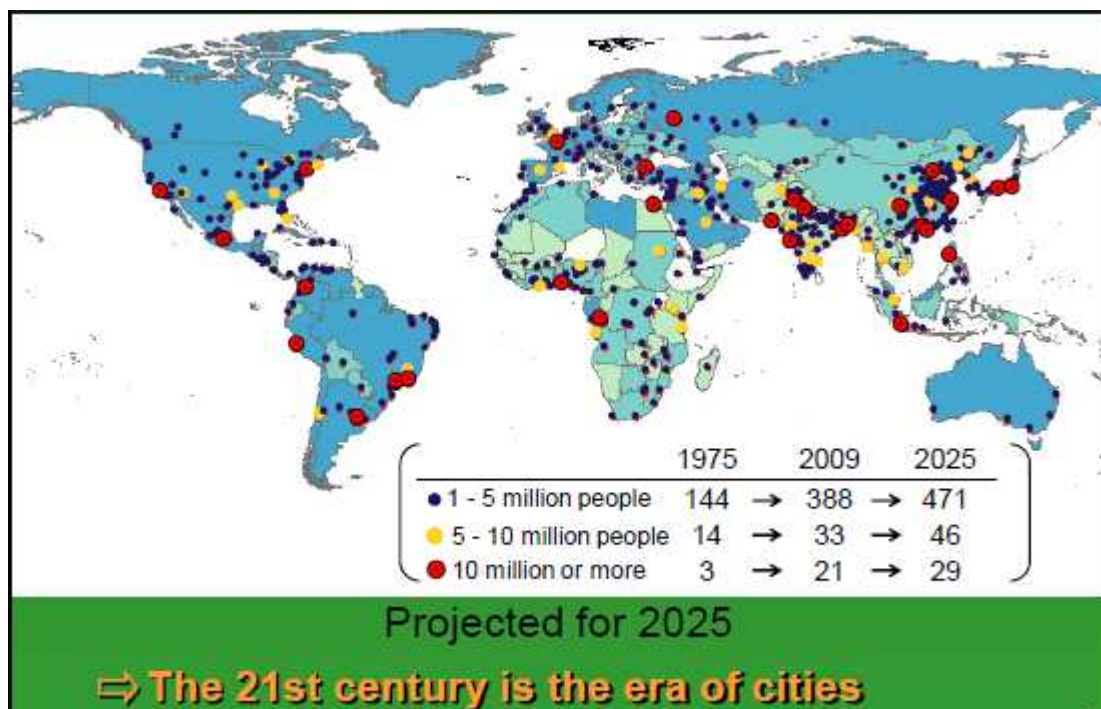
1. Shuzo Murakami의 미래도시 강연

□ 일시 및 장소: 2014. 11. 17(월), 일본생산성본부 본사

□ 주요 강연내용

◦ 21세기는 도시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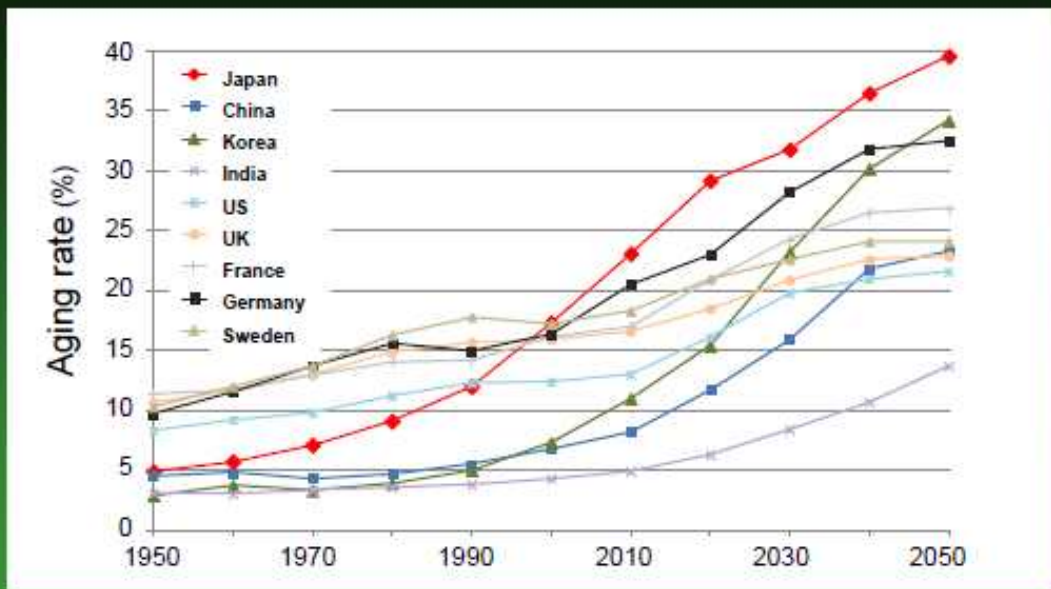
- 1975년 백만 이상 ~ 5백만 이하 도시가 144개에서 2025년 471개로 증가예상
- 1975년 천만 이상 도시는 3개소에 불과하였으나 2025년 29개로 증가 예상



◦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

- 일본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2050년 고령화율이 4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경우에도 일본 다음으로 높은 약 34%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음

Aging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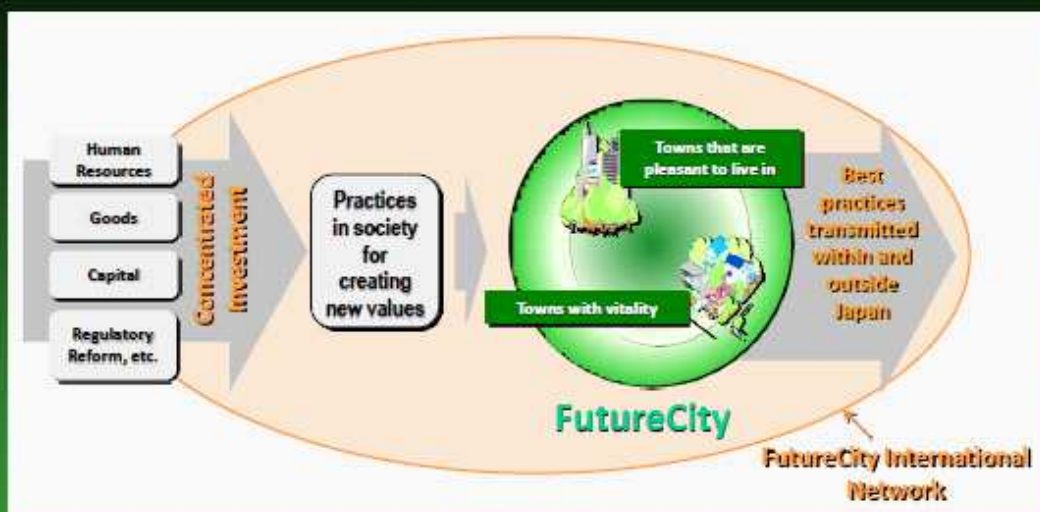
(Aging rate: % of population aged 65 and over)

⇒ Aging in Japan is remarkable

(Source)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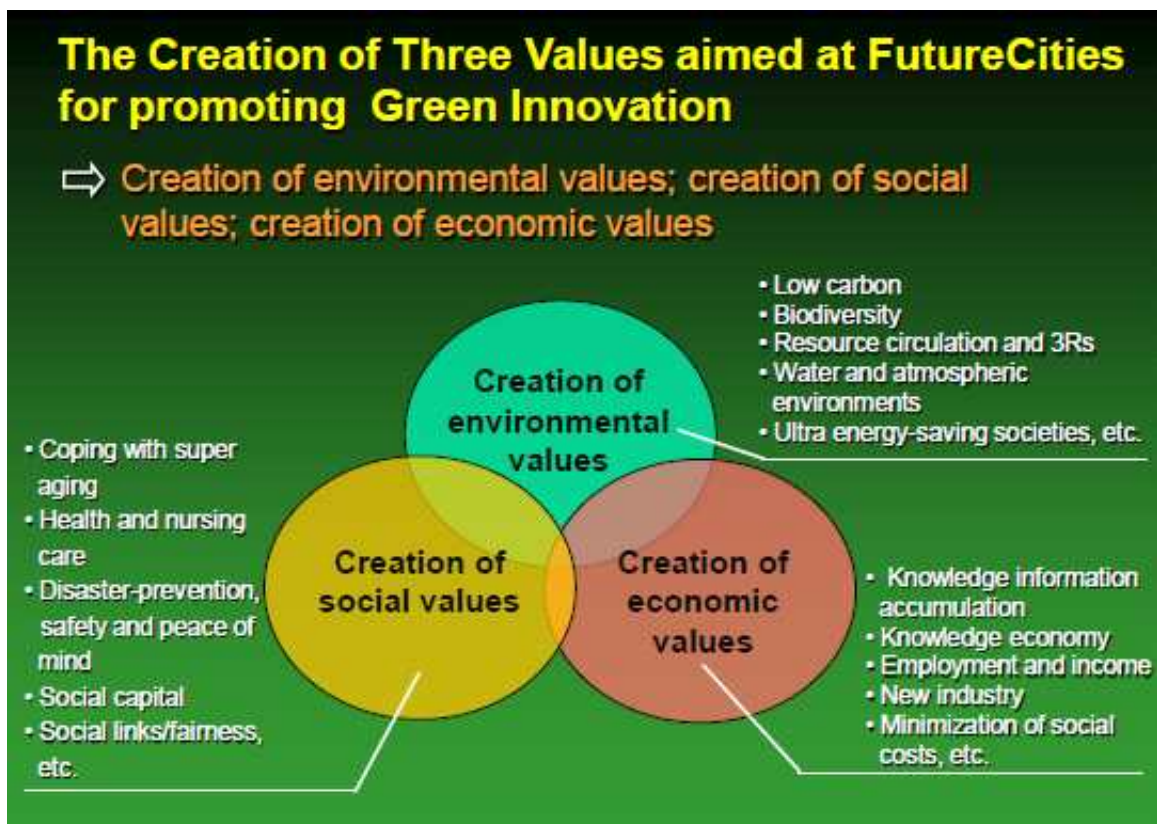
- 지진, 환경오염, 초고령화사회와 같은 일본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

Process for realizing FutureCity



⇒ Realize regional revitalization and a sustainable society through concentrated investment of human resources, goods, capital and regulatory reforms.

-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이끌 혁신을 통해 “도시의 매력”을 증진
- 미래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
 - 인적자원, 상품, 자본투자를 집중하고 규제개편을 통해 지역을 재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여야 함
- 그린혁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미래도시에서 추구해야할 3가지 주요가치
 -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의 창출이 필요함
 - 환경적 가치 : 저탄소, 생물종다양성, 자원재활용, 수자원 및 대기환경, 에너지절약형 사회 등
 - 사회적 가치: 초고령사회에 대처, 헬스케어, 재해예방, 안전, 심리적 안정, 사회적 자본, 사회적 연계망 등
 - 경제적 가치 : 지식정보 축적, 지시경제, 고용 및 소득, 신산업, 사회적 비용의 절감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일본의 미래도시 이니셔티브



2. 기타큐슈 에코타운 프로젝트(Kitakyushu Eco-Town Project)

□ 일시 및 장소: 2014. 11. 18(화)

□ 주요 내용

- 기타큐슈는 일본 공업화가 시작된 장소이며 환경오염을 극복한 대표적 사례 도시
 - 1901년 기타큐슈시에 국영 아하타철강이 최초로 설립됨
 - 기타큐슈공업지역이 일본의 4대 산업지역의 하나로 고도성장하면서 환경오염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었음
 - 과거 죽음의 바다로 알려진 도카이만(Dokai Bay)지역은 박테리아조차 살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자 시민, 지방정부, 기업체 차원의 공동대책반을 마련하여 대처하기 시작함
 - 현재는 100종이상의 어류가 살고 대기오염도 극적으로 해소된 상태임



Polluted Dokai Bay (1960s)



Revived Dokai Bay (present)



"Sky with Seven Colors of Smoke" (1960s)



Return to blue skies (present)

- (기타큐슈 에코타운 프로젝트) 기타큐슈시는 1997년 7월 이후 ‘환경보전정책’과 ‘산업촉진정책’을 통합한 독특한 지역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함
 - 자원리사이클링에 기반을 둔 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함
 - 인적 자원과 기술뿐만 아니라 오래된 산업도시의 인프라와 기술적 역량을 활용하여 환경오염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 환경분야 교육 및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기타큐슈 Science and Research Park와 협력하여 사업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기타큐슈 Science and Research Park) 환경과 정보분야 국립대학, 독립대학, 사립대학, 대학원, 연구기관들이 집중되어 있음

• History of Kitakyushu Eco-Town



Kitakyushu Science and Research Park

The Kitakyushu Science and Research Park brings several national, local and private universities, graduate schools and research institutes together on the under the two main themes of the "Environment" and "Information" in order to develop human resources with the skills to carry us into the future.

Environmental Research Initiatives

- Research Development into Solar Powered Systems Recycling Processes
- Peat Fire Suppression Technology Research Group
- Kitakyushu Area Heat Pump System Research Group
- Li-Ion Battery Reuse and Recycle Research Group
- CFRP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Process Technology Research Group

Support of businesses with low carbon initiatives.





Kitakyushu Eco-Town Center

The Eco-Town Center was established in June 2001 as an environmental learning center to impart knowledge about the projects at Eco-Town and to become a comprehensive support location for the various enterprises at Eco-Town.

Eco-Town projects and also environment-related enterprises in Kitakyushu are introduced using panels and other exhibits at the Kitakyushu Eco-Town Center.

In addition, a tour of various recycling plants is offered.

(Note: Kitakyushu residents are required to pay a reference material fee to participate in this paid tour.)



Next Generation Energy Park (Completed this summer / by March 2012)

In the Next Generation Energy Park, visitors can observe various energy-related initiatives including energy supply bases that support our lifestyles, natural energy and biomass energy, which are expected to become the next-generation energy sources, and also inter-company cooperation and innovative technology research. Visitors can learn about energy at the display section at the Kitakyushu Eco-Town Center Annex. Observation tours of each facility in Next Generation Energy Park are also available.

(Advance reservation is required.)



Tour application/Contact information: **TEL.093-752-2881**

Business hours: 9:00 - 17:00 - Closed on Sundays, holidays and the New Year's holidays
Admission: Fre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Ind... Hibiki Recycling Ar...



Practical Research Ar...



3. 기타큐슈시 히비키 자원재생회사(Kitakyushu Hibiki Recycling Area)

□ 일시 및 장소: 2014. 11. 18(화)

□ 주요 내용

- 기타큐슈시는 환경벤처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임대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 (자동차 리사이클링 지역) 일본최초로 7개의 중고자동차 재활용업체가 연합하여 종합적인 재활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리사이클링업체 지원)

- 식용유 리사이클링: 식용유를 건설용 페인트, 가축사료, 경유대용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작업 시행
- 세정제 및 유기 솔 벤트 리사이클링 프로젝트/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



Cooking Oil Recyc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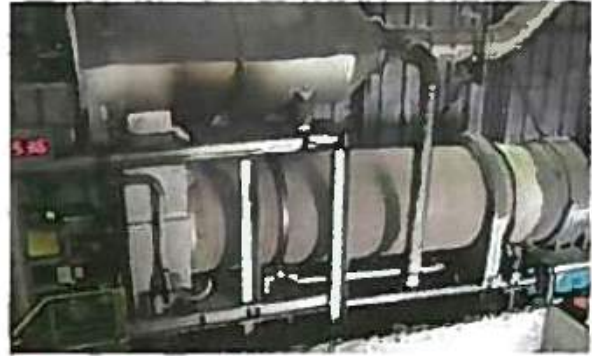


Detergent and Organic Solvent Recycling Project / Waste Plastic Recycling

- 폐지 리사이클링: 가정, 사무실의 폐지를 잘게 썰어 애완동물의 깔개로 재활용
- 알루미늄캔과 철로 된 캔을 자동 분리하여 재활용



Used Paper Recycling



Can Recycling

4. 교탕고시 에코에너지 센터(Kyotango Eco Energy Center)

□ 일시 및 장소: 2014. 11. 19(수)

□ 주요 내용

○(개요) 교탕고시에서 예산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인 아미타코퍼레이션에서 운영을 대행하는 형태

- 주소: 301-1 Kikoritani, Hunaki, Yasaka-cho, Kyotango-city, Kyoto
627-0143 TEL : 0772-65-0026 FAX : 0772-65-0017

- 설립연도: 2009년 10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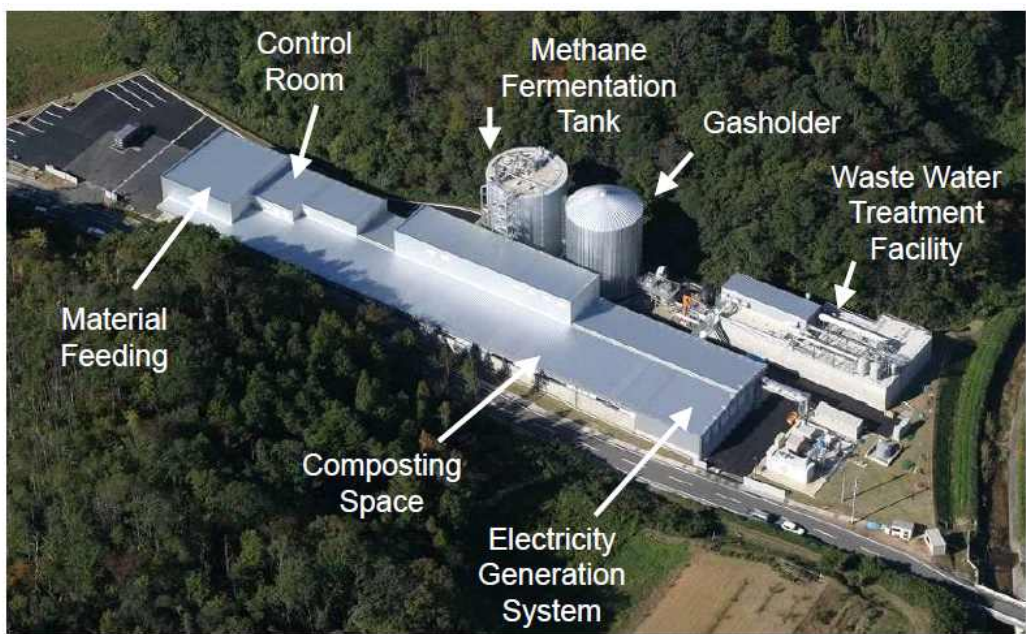
○(주요활동) 자원재활용 교육, 액체비료 및 발효비료 생산, 가정용 음식쓰레기 재활용

- 음식쓰레기 수거: 교탕고시의 식품공장,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를 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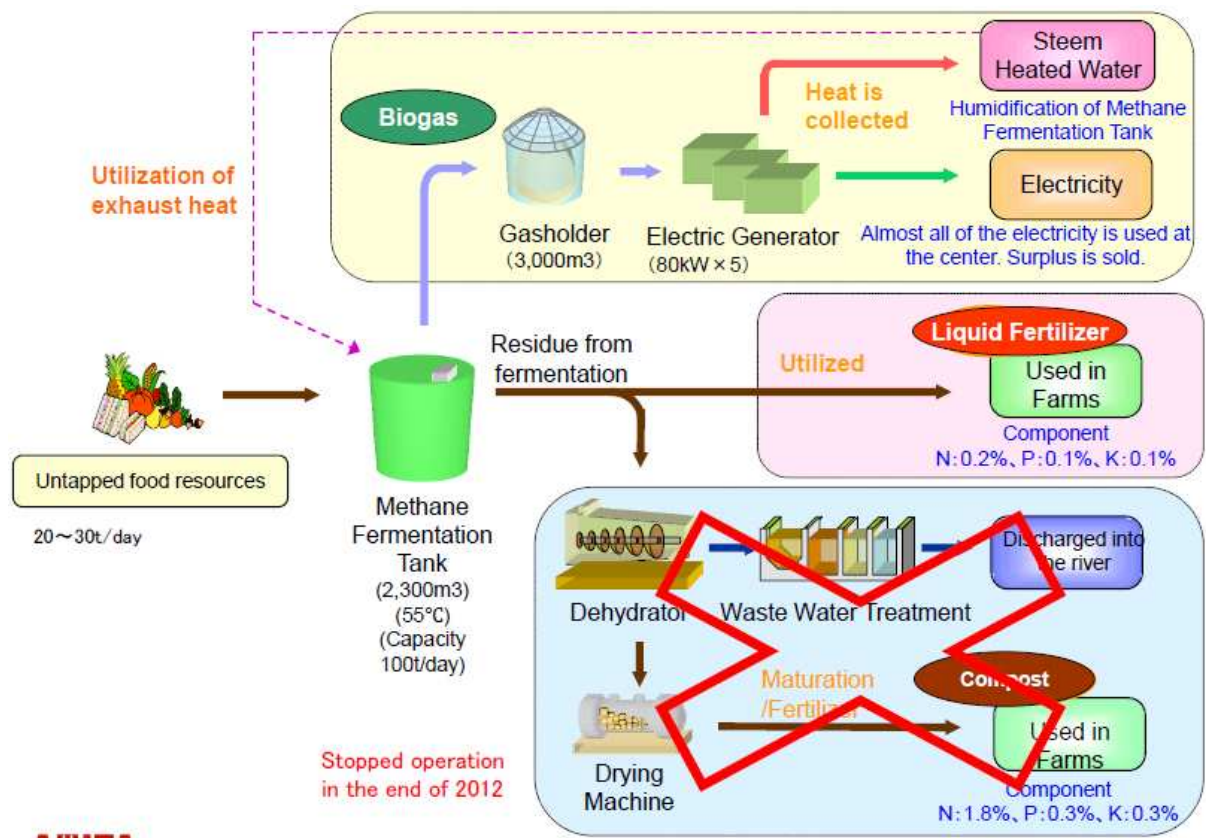
- 전력생산: 발효를 통해 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로 변환하여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로 활용하고 여분의 전기는 전기회사에 매각

- 비료생산: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남은 잔여물을 액체비료 또는 고체비료로 전환

- 환경교육: 공장견학, 학생들의 시설견학을 위한 장소로 활용



〈그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 전경



〈그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프로세스

- (향후 목표) 2018년까지 교탕고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22,510가구의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2013년 200가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에서 시작

2013: 200 households	2014: 500 households	2015: 1,000 households	2016: 5,000 households	2017: 10,000 households	2018: 22,510 households
----------------------------	----------------------------	------------------------------	------------------------------	-------------------------------	-------------------------------

5. 창조도시 요코하마시 (Creative City Yokohama)

□ 일시 및 장소: 2014. 11. 21(금)

□ 일반적인 도시개요

- 동경과 인접한 요코하마시는 437.57km²의 면적에 약 37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일본의 대도시로서 18개 구로 구성되어 있음
 - 2014년 개항 155년을 맞이한 요코하마시의 GDP는 약 12조엔으로서 일본에서 대표적인 국제항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음
 - 항구를 중심으로 발전이 진행되었으며 1970년에 시작된 도시디자인 계획에 따라 상징성이 높은 스카이라인을 가진 미라토미라이 21지구와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활용을 통한 도시 만들기가 진행
 - 도심 주변공간에는 미술, 음악은 물론 전통문화를 포함하는 다양한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시설들의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
 - 2004년부터 도심지 재생을 목적으로 한 문화예술창조 도시구상(Creative city Yokohama)가 추진되었고 새로운 도시 만들기가 진행 중임

□ 도시발전의 역사

○(도시의 역사 I) 1859년 개항

- 1853년 페리제독이 이끄는 미국함대가 내항하여 에도막부와 미일화친조약 즉, 미일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1859년에 개항
- 1866년 대화재로 시가지의 2/3가 소실되었고 도시부흥정책으로 요코하마공원의 정비, 간선대로인 니혼오도오리,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방화시설, 하수도 정비 등 도시근대화를 진행
- 일본의 “문명 개화”의 중심지가 되면서 가스등, 철도, 상수도 등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해외문화가 유입

○(도시의 역사 Ⅱ) 1890년~1922년 항만도시로 발전

- 해외교류가 늘면서 내항선박 수가 증가하고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항만시서의 근대화가 필요하자 정부는 1889년 외국인 기사 파머(Henry Spencer Palmer)의 제안을 바탕으로 1896년 1차 항만시설을 준공
- 무역량이 늘어나면서 1899년 2차 확장공사가 시작되었으며 1917년 완공되었는데 계선(係線)안벽을 가진 신항구의 부두가 완성되어 아시아 제일의 규모를 자랑하는 근대 항만시설이 완공됨
- 또한 이시기 카와시키에서 가나가와에 걸친 임해공업지대도 조성이 진행됨

○(도시의 역사 Ⅲ) 1923년 지진재해

- 1923년 관동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요코하마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시가지의 약 80%가 파괴되었고 건축물의 약 96%가 피해를 봄
- 요코하마시가 제안한 항만시설의 확충이나 철도망의 개편, 도로·공원 정비 등의 사업은 재정난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았고 최소한의 가로확장공사나 중심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만 진행
- 지진재해 쓰레기를 이용한 매립이 행해져 일본최초의 임해공원인 아마시타공원이 정비됨
- 관동대지진의 부흥 후에는 게이힌 임해부를 중심으로 공장들이 입지하면서 공업도시로도 발전하게 됨

○(도시의 역사 Ⅳ) 1940년~1945년 전쟁재해

- 1945년 5월 29일 요코하마 대공습에 따라 도시는 다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시가지의 약 42%가 소실
- 전쟁이후 미군에 의해 시가지의 62%(중심상업지의 74%)가 몰수되면서 오래전부터 도심인 간나이지구 경제활동이 마비되어 요코하마역 주변지구에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
- 광폭의 도로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도 전후복구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재정난으로 규모가 대폭 축소됨
- 1950년대에 도심부 몰수가 해제되고 간선도로에 접한 내화건축물을 설치해가는 방화건축 지역의 건설이 진행

○(도시의 역사 V) 2차 대전 이후 인구 급증과 도시문제 발생

- 고도성장기에 들어서면서 동경으로 인구집중이 계속되었고 요코하마시는 베드타운화가 진행되어 교외부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진행되는 스프롤이 발생
- 이러한 인구급증에 비해 도로, 학교, 공원 등의 생활기반시설은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해 구릉지의 난개발로 녹지가 감소하고 생활환경이 악화되었음
- 수변공간은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특히 중화학공업의 발전에 따라 대기오염을 비롯한 다양한 공해문제가 부각되었으며 자동차보급이 확대되면서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였음
- 당시 아스카타 이치오시장은 쓰레기, 공해, 도로교통, 수자원,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5대 전쟁을 선언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음

○(도시의 역사 VI) 1965년 6대사업의 추진

- 1963년 시장으로 취임한 아스카타 이치오는 건축가이자 도시계획가인 사야다 타카시가 대표를 맡고 있는 환경개발센터에 요코하마시의 장래구상을 의뢰
- 1965년 “도시만들기의 미래계획 구상”이 발표되었고 이구 상에는 요코하마의 새로운 도시상, 도시 만들기의 골격이 되는 6가지 사업이 포함
- 항구도시, 공업도시, 주택도시라고 하는 그 동안의 도시만들기의 세가지 방향성이 양립할수 없으며 새로운 “국제문화관리도시”라는 도시상을 도출
- 도심부의 재개발을 위해 공장을 가나자와 지선의 매립지로 이전하는 것, 고우호쿠지선을 매립지로 이전하는 것, 고우호쿠 뉴타운 건설과 고속철도의 정비 등이 상호 보완됨으로써 목적을 달성 할수 있도록 개별사업의 밀접성을 강화
- 6대 사업의 의의는 항만, 공업도시화에서 생활중심지로 전환되어 대규모 컨테이너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심시가지 인접지역을 항만시설용지로 토지이용을 전환하는 등 새로운 시대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임

○(도시의 역사 VII) 도시디자인사업

- 1965년 6대사업 발표 후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조정국이 설치됨

- 제안자인 타무라 아키라가 요코하마시 공무원이 되어 6대사업과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리더로서 활동하게 됨
- 1970년대 기획조정국이 도시디자인 담당(이후 도시디자인실)이 설치되어 도심부의 기능성 및 경제성 등의 가치관과 아름다움, 즐거움, 윤택함 등의 미적 가치, 인간적 가치의 균형을 이루고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시행
- 보행자 산책로의 정비, 마차길 상가의 보행자공간 정비, 아마시타공원 주변지구와 니혼오오도오리 지구에 대한 마스터플랜 작성이 완료됨
- 1980년에는 기성시가지에서 쌓은 노하우를 살려 미나토미라이21지구 도시디자인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함
- 또한 “역사”, “물과 녹지”, “시민참여” 등 새로운 테마에 도전하면서 도심에서 교외지역으로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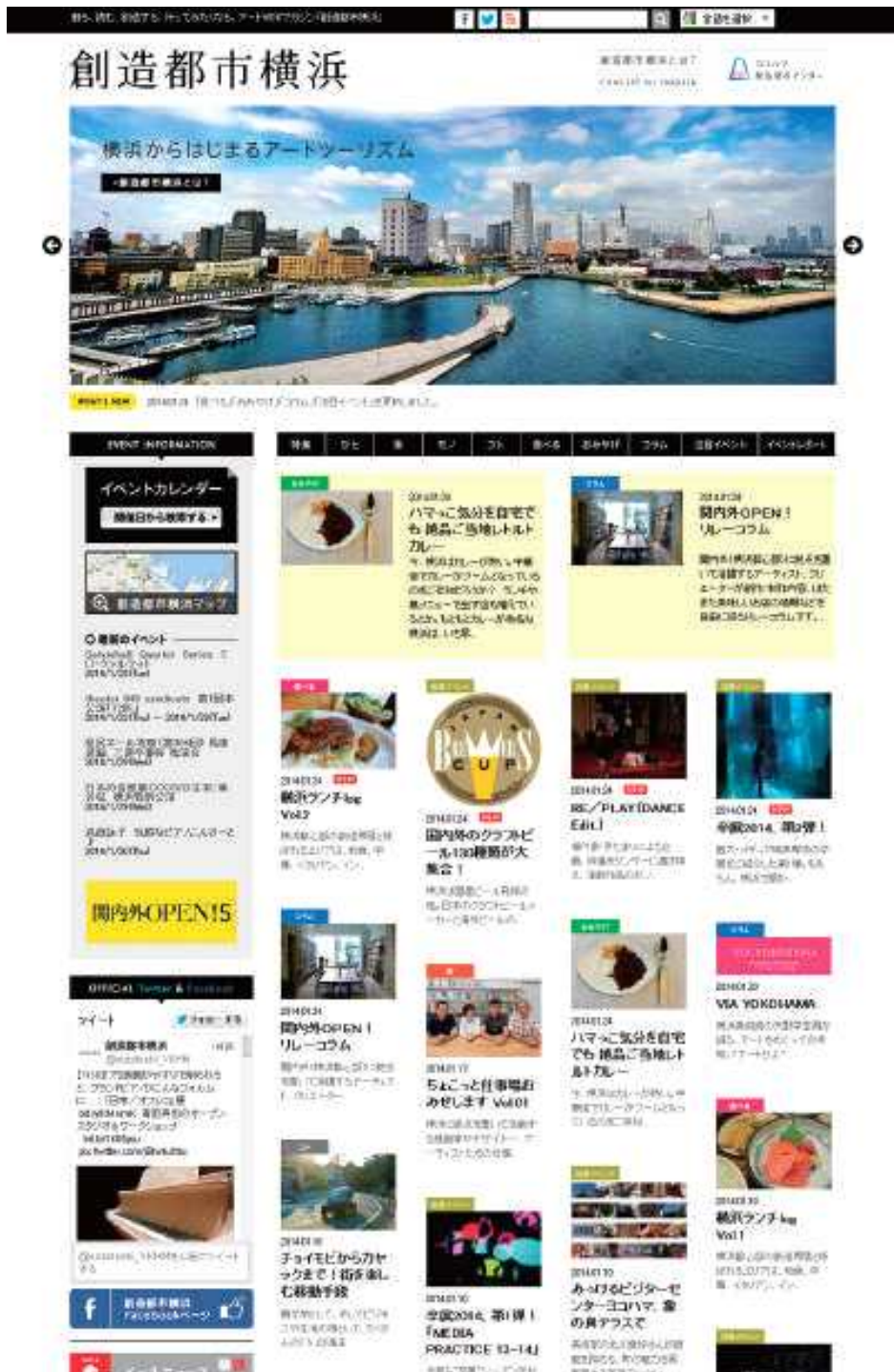
※ 도시디자인 7가지 목표

- (1) 보행자 활동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
- (2) 지역의 지형, 식생 등 자연적 특징을 소중히 함
- (3)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소중히 여김
- (4) 오픈스페이스나 녹지를 풍요롭게 함
- (5) 바다, 강 등 수공간을 소중히 여김
- (6)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 소통의 장을 늘림
- (7) 형태적, 시각적 아름다움을 요구

○(도심부 강화사업)

- 개항기부터 중심시가지인 간나이·간가이지구와 전쟁이후의 개발로 인해 생겨난 요코하마 역 주변지구 사이에는 조선소나 항만시설, 화물철도 조차장등이 있어 이로 인해 도심이 양분되었음
- 이러한 시설들을 이전시켜 재개발(후일 미나토미라이 21지구), 두 도심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도심강화사업의 목적이었음
- 항만시설과 공장이 입지해 그동안 시민에게 개방되지 않은 수변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거나 기성시가지에서 니혼오오도오리지구, 죠노하나지구를 거쳐 아마시타공원에 이르는 녹지축

을 정비함으로써 물과 녹지로 조성되는 도심부의 골격 만들기가 완성됨



□ 미나토미라이 21

○(개요)

- 미나토미라이 21지구에서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미나토미라이 21 가로조성 기본협정”이 체결되어 “마스타플랜”에 기반을 둔 도시조성사업이 진행
- 랜드마크 타워와 닛산 본사건물이 있는 중앙지구에서는 요코하마역 측, 사쿠라기초 측에서 각각 바다로 향하는 축(킹 축과 퀸 축)으로서 블록 구간을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자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흰색을 기본으로 하는 퀸 축에서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낮추어가는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하였음
- 일본 근대항만의 시발지인 신항구지역에서는 역사성을 배려하고 보존 활용된 적벽돌창고와 조화를 이루는 브라운색의 저층건축물들이 가로를 형성하고 있음
- 지구내의 수변공간은 개방되어 있으며 과거 화물선로를 산책로로 바꾸는 등 유쾌한 수변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적벽돌 창고) 창고 1호는 1913년, 2호는 1911년 준공됨

- 츠마키 요리나가가 이끄는 대장성의 설계에 따라 보세창고로서 건설
- 일본최초의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벽돌 속에 철재를 넣어 당시로서는 최신의 내진공법인 정련철구법(定聯鐵構法) 등 최첨단 기술로 사공
- 1970년대부터 요코하마 시는 국가 소유인 적벽돌 창고의 보전을 검토해 1992년 협상 끝에 적벽돌창고의 토지와 건물을 국가로부터 취득해 “보존·활용검토위원회를 설치
- 내진공사를 포함한 내부공사를 거쳐 2002년에 1호관은 문화시설로 2호관은 상업시설로 리모델링하여 개장

○(독야드(Dock yard) 가든)

- 요코하마 항만계획에 큰 업적을 남긴 영국인 H. S. 파머(Henry Spencer Palmer)의 조언을 받아 요코하마의 재계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요코하마 독 주식회사”에서 본격적인 선박수리시설을 갖춘 2개의 석도 독을 건설

- 제2호 독은 해군기사인 츠네가와 류사크가 설계하여 1896년(메이지 29)에 준공되었는데 현존하는 상선용 석조 독 중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것임
- 1983년에 미나토미라이 21 중앙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고 2호독은 해체수리가 이루어졌으며 1993년에 랜드마크 타워부지가 재생되었고 1997년에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
- 1898년(메이지 31)에 준공된 1호 독은 니혼마루 메모리얼 파크로 범선 니혼마루(日本丸)를 계류하는 전시시설로 보존되어 있음(국가지정 중요문화재)



<그림 > 독야드 가든

○ 대선창 국제여객터미널

- 대선창은 요코하마 제1기 축항계획의 일부로서 1894년에 건설되었으며 이후 관동대지진에 따른 피해와 전후 미군에 점유됨
- 1980년대에 마련된 대선창지구 재개발계획에 따라 대선창 국제여객선 터미널 국제디자인 공모를 개최
- 세계 41개국, 660작품이 응모하였고 최우수작품으로 영국 건축가 아레자드로 자에라 폴로(Alejandro Zaera-Polo)와 파르시드 무사비(Fashid Moussavi)라는 건축가의 작품이 당선됨
- 2002년 준공된 대선창 국제여객선 터미널 디자인의 특징은 파도를 이미지한 외관과 우드데크로 계획된 마당과 같은 옥상공간, 기둥을 설치하지 않은 내부의 대공간 계획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역사자산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개요)

- 간나이(關内) 지구의 근대건축, 아마테(山手)의 서양관, 교외부의 고택, 항만시설과 교량과 같은 역사자산들은 요코하마 도시의 발전을 현재에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역사자산임
- 그러나 관동대지진이나 요코하마 대공습으로 개항시기의 건축물이 많이 소실되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발압력이 높아져 역사적 건축물이 사라지게 됨
- 귀중한 역사적 자산을 도시만들기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요코하마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역사적 자산 조사후 1988년 “역사를 살린 도시 요강”을 제정
- 소유자나 시민, 전문가 등이 협력해 역사적 건조물을 보존, 활용하는 동시에 문화재 제도와 제휴하면서 도시 만들기에서 역사적 경관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역사를 살린 마을만들기 요강)

- 요코하마를 요코하마답게 만들고 있는 역사적 건관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관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내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활용을 추진하는 제도
- 경관적 가치가 있는 역사적 건축물을 등록하고 그 중 특히 중요한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면서 보존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보존활용방침이나 보존내용을 결정한 후 외관보전공사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

○(니혼오오도오리(日本大通り) 역사적 경관보전)

- 니혼오오도오리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요코하마 시 주도로 개발구상이 제시됨
- 요코하마 지방·간이재판소나 요코하마 정보센터 정비에서는 저층부의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고 그 뒤에 고층건물을 세우는 등의 방식을 고안해 니혼오오도오리 역사적 경관보전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에는 보도 확장정비와 노천 카페의 유치, 조노하나 공원을 정비를 통해 요코하마를 대표하는 가로공간으로 육성하고 있음

○(아마테 서양건축물 보전 활용)

- 아마테 지구는 구 외국인 거류지로서 발전해 현재도 교회나 학교건물, 서양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임
- 1972년 아파트 개발붐에 의해 발생한 경관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아마테 경관풍치보전요강을 제정
- 1980년대 이후로는 역사를 살린 마을 만들기의 시범지구로 엘리스맨(Erismann)저택의 복원을 비롯하여 시가 서양건축물을 취득하여 공원 내에서 보전 활용함과 동시에 소유자의 협조를 받아 서양건축물을 보존 활용하고 있음

□ 보행자공간의 도시디자인

○(마차길)

- 가스등을 최초로 밝히는 등 문명개화기에 새로운 서양문화가 도입된 지역임
- 상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1976년 보행자공간을 정비하고 그 이후 일방통행화하고 차선수를 줄여 보도를 확대하는 등 재정비를 진행
- 벽돌타일의 포장, 가스등의 부활 등 독자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건물용도, 건축선후퇴, 색채, 공공공간의 유지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마을만들기 협정”을 맺고 협의형 마을만들기를 진행
- 최근에는 광역도시계획 규범, 지구계획, 경관계획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상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 매니지먼트의 노력도 주변에서 시작

○(모토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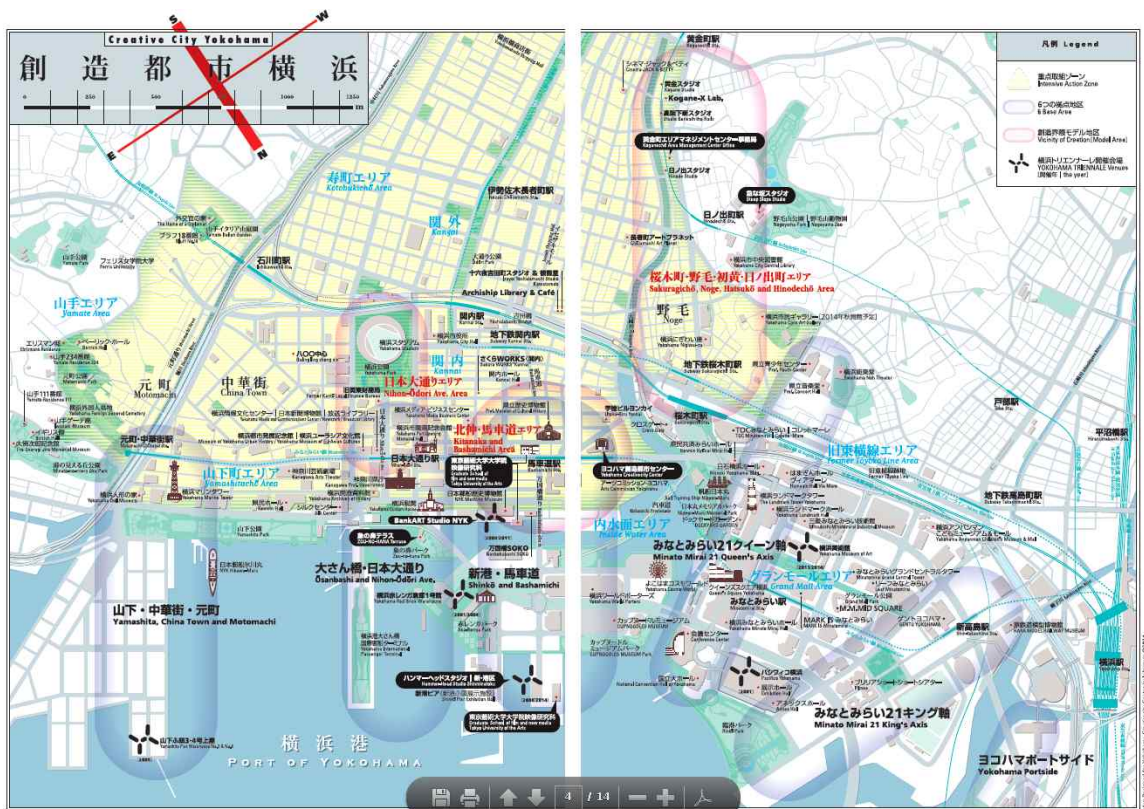
- 모토마치는 아마테 거류지의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상가로 발전해 현재는 여성패션 관련 상점을 중심으로 자체 브랜드를 제작하는 상가로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음
- 1955년부터 제1기 도시정비 시 건축선후퇴, 1985년 제2기 도시정비 시 쇼팡몰 정비사업과 함께 가로조성 협정을 맺고 마을 만들기를 추진
- 2004년 제3기에는 물 재정비와 함께 마을 만들기 협정도 모토마치에서 카이칸도오리(河岸

通り), 나카도오리(仲通り), 자치회로 확대되고 지구계획도 도입

□ 창조도시 요코하마

○(개요)

- 2000년대 이후 미나토미라이 21지구가 번성하는 대신 간나이(関内)·간가이(関外)지구의 오피스 공실률이 높아지고 중심시가지의 쇠퇴문제가 대두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도심부 활성화 검토위원회가 설치되고 기타자와 다케루(전 요코하마시 도시디자인 실장)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창조도시 -Creative City Yokohama)의 형성을 향해서”를 제시하였음
- 이 제언을 바탕으로 문화 예술의 창조력과 매력 있는 공간, 문화, 다양한 인력, 산업 경제를 조합하여 도시의 새로운 가치와 매력을 만들어 내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시책을 융합시킨 새로운 도시비전으로서 “크리에이티브 시티”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음



○(내셔널아트공원 구상)

- “크리에이티브 시티 요코하마의 건설을 위한 제언”(2004)에서 그 실현을 위한 3가지 프로젝트중 하나로 제안된 구상이 창조도시의 도심 수변공간 그랜드 디자인인 “전체구상”과 전략계획으로서 “실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도심임해부 6개 거점지구와 내륙의 창조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적 건축물, 항구의 경관과 같은 자산을 활용하면서 문화예술로 대표되는 창조적 활동의 적극적인 유도로 국제적인 관광교류거점을 형성하고 창조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있음

□ 창조지역의 형성

○(개요)

- “니혼오오도오리”, “마차길”, “사쿠라기쵸·노게”의 3개 권역에서는 역사적 건축물이나 창고, 빈 사무실 등을 예술가 및 크리에이터가 창작·발표·거주할 수 있는 창조적 활동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가로와 활성화를 추진하는 “창조지역의 형성”을 추진하고 있음
- 특정지역에 창조기능, 발신기능, 육성기능, 산업집적기능, 시민교류활동 등의 다양한 기능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시민 창조적 활동의 촉진, 유능한 인재의 집적,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효과를 유발

○(BankART Studio NYK)

- 창조도시의 중점계획인 창조지역 형성 프로젝트에서는 도심의 역사적 건축물이나 창고 등을 창조적 활용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예술가나 창조계층이 창작, 발표, 체류·거주할 수 있는 일정한 영역감을 가진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진행
- “니혼오오도오리”, “마차길”, “사쿠라기쵸·노게”의 3개 권역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 중 플래그십(flagship)으로 이루어진 추진거점이 구 일본 우편선 창고를 활용한 BankART Studio NYK임
- BankART Studio NYK라는 이름은 요코하마시가 2004년 시작한 창조도시 구상 추진을 위한 실험사업인 2개 은행건물(구 제일은행, 구 후지은행)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조의 실험적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임

- “Bank”+“Art”로 대구 중구처럼 원래은행이었던 두 건물을 예술문화에 이용한다는 의미를 담은 조어임

- 이 실험적 사업에서는
① 구시가지의 소프트웨어도 포함한 가로의 활성화, ② 문화시설 등 문화사업의 역군으로서 본연의 자세 및 그 활용방법에 대해 시민과 협력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도 설정



<그림> BankART Studio NYK

- 하는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운영단체가 결정
- 그 후 운영모체인 BankArt1929는 이케타 오사무씨를 대표로 NPO법인화하여 구 일본 우편선 창고로 거점을 옮겨 BankART Studio NYK를 운영하게 됨
- BankART Studio NYK는 전람회, 거주형 창작활동(artist in residence) 프로그램 운영, 학교, 술집(Pub), 출판 뿐만 아니라 마을안에서 아트 프로젝트의 전개와 트리엔날레와의 연계, 예술가나 창조계층의 활동거점이 코디네이트(기타가나 Brick&white, 해머 헤드 스튜디오신 항구마을 등)에도 퍼져 요코하마시가 추진하는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유치에도 기여
-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4에서는 “BankARTLifeIV 동아시아의 꿈”을 개최

○(요코하마 창조도시센터)

- 구 제일은행 부지에서는 “요코하마 아이랜드 타워”라는 고층건축물 재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음
- 재개발계획안은 구제일은행의 침두의 동근 부분만 보존하여 현재 위치로 건물을 그대로 옮겨오는 방법으로 후면부분에 대해 당시모습으로 복원하였음

- 처음에는 BankArt1929로 쓰였지만, 2009년 5월부터 요코하마 창조도시센터로 문화예술창조도시 요코하마의 추진거점이라는 기능을 담당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음

- 요코하마 창조도시센터는 요코하마에 모이는 예술가, 창조계층, NPO, 시민, 기업, 학교 등 다양한 “창조의 일꾼”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됨

- 아트활동에 대한 상담과 코디네이션, 개발 프로그램, 예술부동산(창조활동의 장소만들기) 등을 진행



<그림> 요코하마 창조도시센터

- 또한 요코하마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의 일터를 공개하는 “간나이가이 오픈”, 요코하마에 관한 강좌 “YCC스쿨” 등의 활동도 전개

○(쥬노하나 테라스(象の鼻))

- 쥬노하나 테라스는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쥬노하나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9년 6월 2일에 개관

- 새로운 “문화교역”을 컨셉으로 아트공간을 갖춘 휴식공간(rest house)으로서 요코하마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도시비전 “문화예술창조도시 크리에이티브 시티 요코하마”를 추진하는 문화관광 교류거점의 하나로 운영



<그림> 쥬노하나 테라스

○(지역재생 마을만들기 사업)

- 창조지역 형성사업의 일환으로 과거 불법 유흥업소가 다수 밀집된 하쓰코우·히노데초(初黄・日ノ出町)지구에서 문화예술의 힘으로 마을 재생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시행
- 지역주민, 경찰, 행정, 기업, 대학 등이 협력하여 2008년 지역연동형 아트 프로젝트를인 “코가네초 바자르”를 개최
- 게이힌 급행고가도로 밑의 스튜디오와 그 지구의 빈 점포 등을 활용한 마을재생을 위한 아트행사로 전국의 주목을 받음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에는 “아트를 통한 마을만들기”를 주제로 새로운 법인 “코가네초 지역 매니지먼트 센터”가 설립
- NPO 법인을 중심으로 아트를 비롯한 이벤트 사업과 지역과의 연계 등 일상적인 마을만들기 관련활동을 강화하면서 “안심·안전의 마을 만들기”가 추진
-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행사기간중 “가상의 커뮤니티 아시아”를 개최 <그림> 고카네초지역(철도 하단 활용)
- 해 해외에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참여



○(요코하마 트라엔날레)

- 3년에 한번 개최되는 현대 아트의 국제전시회로서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아티스트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 이외에 신진 아티스트도 널리 소개해 세계 최신의 현대아트 동향을 소개
- 2001년에 1회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에는 5회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창조도시 요코하마”의 리딩 프로젝트(leading project)로서 전시중 구내외의 많은 음악가와 관계자가 모여 풍부한 창조성을 가진 시민과 개성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NPO 등이 연계해 개최
- 전시회를 개최하지 않는 기간에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서포터와 함께 준비함

- 제5회 전시회인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2014”는 아티스트 디렉터이자 미술가인 모리무라 야수마사 씨를 초청해 “카이온(華氏)451의 예술: 세계의 중심에는 망각의 바다가 있다”를 주제로 개최

○(영상문화도시)

- 매력 있는 영상문화의 공급과 인재육성을 위해 대학과 연대하여 도심에서 열리는 특색 있는 영화제 개최를 지원
- 보다 창조적인 인재의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영상문화시설 정비와 도쿄예술대학 대학원 영상연구과 등의 유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시설 등을 활용한 지역공헌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영상문화지역으로 <그림> 영상문화시설 리모델링 전 추구



○(창조의 역군 육성)

- 크리에이티브 시티 요코하마의 실현을 위해 신진 예술가의 육성을 포함해 다양한 창조활동을 담당할 폭넓은 인재를 육성하고 아트 NPO 등 중간지원기능의 강화를 도모
- 그중 창조적 예술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서 “요코하마시 예술창조활동 추진사업 보조금 교부요강”을 바탕으로 한 보조제도가 운영됨
- “아티스트 인 레지던서(Artist in Residence)”는 보조대상중 하나인 창조거점을 중심으로 해외의 예술거점과 교류하면서 미술·무대 예술분야의 아티스트·크리에이터의 상호수용과 체류형의 제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Smart illumination)

-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한 수변공간의 야경은 에너지절약기술과 아트의 힘을 연출하며 친환경적인 도시로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행사를 진행
-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4 요코하마-Smart Illumination 요코하마 2014”를 개최하였는데 주된 테마는 “환경미래도시·요코하마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시대의 조명”이었음